



한화에너지 군산공장, 지역아동센터 환경개선

어려운 환경의 어린이들을 위해 꾸준한 지역사회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업체가 있어 주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군산시 소룡동은 한화에너지 군산공장(공장장 박종구)과 16일 오식도지역아동센터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다고 16일 밝혔다.

한화에너지는 이날 30여명의 아동이 이용하는 방과후 돌봄 시설인 오식도 지역아동센터에 책상 및 의자(300만원 상당) 등을 지원해 쾌적한 학습공간을 조성했다.

한편, 한화에너지 군산공장은 지난 2013년부터 사회복지관 급식봉사, 저소득 아이들을 위한 공부방 만들기, 환경정화활동,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태양광 설치지원 등 지역사회를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현대차 전북본부, 식자재 꾸러미 200세트 기부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한 온정의 손길을 전했다.

전주시는 16일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강태원)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1000만원 상당의 식자재 꾸러미 200세트를 기부했다고 밝혔다.

'희망♥사랑' 꾸러미로 불린 이번 식자재 꾸러미는 5만원 상당의 지역에서 생산된 쌀과 야채, 과일 등으로 구성됐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 200세대에 전달될 예정이다.

강태원 현대자동차 전북지역본부장은 "이번 나눔을 위해 전 직원이 정성을 다해 꾸러미를 만들었다"면서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취약계층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안전한 전북도 만들기 캠페인 2탄’

삼북대위 소외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

(사)전라북도지역봉사센터는 16일 도센터 교육장에서 '삼북대위 소외계층을 위한 삼계탕 나눔'을 진행했다. 삼계탕 나눔은 한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삼복(초복, 중복, 말복) 기간을 맞아 소외될 수 있는 이웃을 위한 나눔행사다. 도민의 관심과 적극적인 동참으로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조성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번 도센터를 시작으로 순창군센터와 군산시센터 등 총 3회에 걸쳐 권역별 릴레이로 진행된다.

초복 첫날에는 도센터 임직원과 회원단체 20여명이 함께 참여, 이른 아침부터 닭 손질, 동충하초, 수삼, 황기, 인삼 등 한방재료를 넉넉하게 넣은 닭 육수 만들기 및 결집이 김치, 오이고추 무침 등 반찬(4찬)을 일회용기에 압축포장,소빙백에 담아서 전주시 외 4개 군 지역 소외계층 총 350세대에 전달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라이온스클럽356-(전북)지구 온고을 PMF클럽의 '코로나19 소외계층을 위한 물품지원'에 따른 후원금으로 삼계탕용 생닭 1,000마리를 준비, 행사당일 14개 시,군센터를 통해 추천받은 총 980세대의 소외계층 가정에 직접 전달한다.

행사를 후원한 온고을PMF 라이온스클럽 김용희 회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힘들지만 소외계층은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어 지역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



하다"면서 "이번 기부를 통해 회원들과 함께 지역사회 어려움에 적극 동참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전한 전북도 만들기"는 전북도가 어떤 재해도 미치지 않는 안전한 곳, 그린 존을 만들기 위해 방역이 필요한 학교, 공공시설 등에 대한 방역을 실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의 건강 및 감염예방을 위한 도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독려하는 운동이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전 학년의 등교일정을 맞춰 전북도 의용소방대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14개 시,군센터와 협력,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총 44회 감염예방 및 방역활동을 릴레이로 추진했다.

/유호상 기자



LX, 비대면 온라인 서포터즈 발대식

국민소통과 참여에 앞장서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사장 직무대행 최규성)가 서포터즈 발대식을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LX는 16일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에 임시 화상회의 스튜디오를 설치하고 '온라인 LX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대학생 25명으로 이루어진 서포터즈가 화상회의방식으로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위촉한 LX서포터즈는 위촉일로부터 연말까지 활동하며 온라인을 중심으로 공사의 서비스와 업무전반에 관한 다방면의 소식을 국민에 알기 쉽게 전달하는 소통메신저의 역할을 맡게 된다. 또 정기적인 미션을 수행하면서 국민의 시각에서 국토정보서비스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도 제시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원주문화재단, '청년, 완주에 물들다' 개최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원)는 지난 15일, 전북혁신도시 분사에서 원주문화재단과 함께 '청년, 완주에 물들다' 행사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원주문화재단 '주민정책연구단' 사업의 일환으로 공사 직원이 참여한 '혁신도시 공공기관 청년직원 문화만족도 향상'을 통한 청년직원 지역정착 유도방안 연구의 실증을 위해 기획됐다.

행사 참여자로 선정된 10명의 청년직원들은 완주지역 공예작가들과 4회에 걸쳐 '도자작 그리기, 아크릴화' 등 문화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완주혁신도시 입주기관 청년직원 문화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윤상 기자

전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 '민관 합동지원 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전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최근 민관 합동지원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발표회에는 전북도 장애인복지과와 인권담당관을 포함해 14개 시·군·구 통합사례관리사들이 참석했다.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과 장애인 학대 현황을 공유하여 도내 장애인 학대의 심각성을 알리고 민·관이 합동 지원한 우수사례를 발표하여 효과적인 권리구제를 위한 협력이 필요함을 알렸다.

학대 피해장애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협력한 김영태 통합사례관리사(전주시 덕진구청 생활복지과 희망복지지원팀)에게는 감사장 수여를 통해 격려하는 자리를 가졌다.

전라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박민수 기관장은 "민·관이 장애인 학대를 발견하거나 지원 과정에서 상호 협조가 필요한 경우 서로 협조한다면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사례라



도 해결 방안을 마련할 수 있으니 앞으로 적극 협조 바란다"고 전했다.

전북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전라북도 내 장애인 학대 신고를 받고 피해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전주매일** www.jmaeil.com 2009년 11월 29일 등록(일간) (우)660-912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4층 (서노송동)

발행·편집인 조봉성 부회장 김승곤 부사장 김양욱

• 대표전화 288-9700 • 업무국 FAX 288-9703 • 편집국 FAX 288-9704

전주지사 010-9645-4113	중앙지사 010-9088-6874	남원지사 632-3996	고창지사 563-6999
삼천지사 010-2333-4791	인후지사 246-6865	김제지사 545-1227	임실지사 010-9642-2725
서신지사 272-9417	송천지사 255-2404	완주지사 246-6865	진안지사 433-3064
호지지사 010-8645-9935	팔복지사 253-6844	남원지사 632-0995	정읍지사 536-3767
	군산지사 010-6789-0038	순창지사 653-0444	장수지사 010-3882-6157
	익산지사 658-9923	부안지사 010-2425-4182	무주지사 010-2300-425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인쇄인 이상현 \*\*본지는 신문윤리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장기요 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제조업체 현장방문**

장기요 농협은행 전북본부장이 16일 남원시 노암동에 소재한 탁주 및 약주 제조업체 농업회사법인 (유)술소리(대표 김금자)를 방문해 도내 기업 현장방문 행보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현장방문은 지난 14일(화) 익산 소재 자동차용 부품 제조업체인 신평산업(주)에 이어 다양한 산업분야의 기업과 직접 소통하며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자 마련됐다.

장기요 본부장과 김금자 대표는 기업의 제조설비를 살펴본 뒤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농식품 제조업체의 경기 동향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위한 신속한 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윤상 기자

**원광대 박광수 교수, 세계적 종교 저널에 논문 게재**

원광대학교(총장 박맹수) 교학대학 원불교학과 박광수 교수가 종교학계의 세계적 저널인 Religions(A&HCI) 학술지에 '한국의 원불교 장례의례(The Funerary Rites of Won Buddhism in Korea)'를 주제로 논문을 게재했다.

학술지 'Religions'는 세계적으로 권위를 인정받는 SCI급의 A&HCI(예술 및 인문과학) 등재 학술지이다. 이번 연구는 19세기 후반에 국내 및 국제사회의 급변과 종교, 정치, 문화 등 다양한 격변의 시기에 새로운 종교 운동이 등장했다는 점을 밝히고, 현재 가장 활발한 새로운 종교 운동인 원불교를 중심으로 소개했다.

/익산=장원형 기자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전주매일 캠페인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